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새로운 지표는...



**이영선**

한국야구포럼 대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경기지원위원회 위원  
유튜브 "이영선의 성동원두" 크리에이터  
bergen21@naver.com

##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지에서는 지면을 통해 “세계는 코로나 전(前)과 후(後)로 나뉠 것...” 그리고 덧붙여서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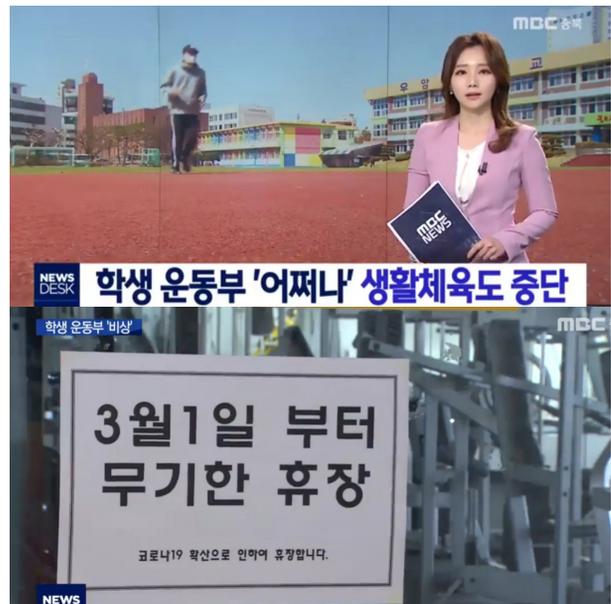
이러한 기사를 접한 필자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너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 해 보인다. 많은 학자들은 예전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라는 표현을 빌려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국가가 황폐화가 된 것도 아니고 세계 대공황으로 인하여 경제적 난민들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출처: shutterstock

전쟁이든 경제 대공황이든 간에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였지만 코로나19사태는 인류문화에서 기초적인 일상 생활문화의 단절을 만들었다. 단체 문화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특히 대중이 응집하는 공연장을 비롯한 극장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등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일상이었던 심오한 종교 활동까지 제한을 받는 환경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늘길 단절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통상무역 등이 큰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제를 비롯한 사회문화 환경의 기본적인 틀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은 과거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잠시 중단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연기된 적이 없었던 올림픽도 연기하는 파괴력을 가진 괴물로 둔갑하고 있다. 이에 사회 전반적인 분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출처:MBC충북

## 학생 체육계 대 변혁 예고

사회는 앞서 언급했듯 거리두기 운동을 장려하는데 대부분의 운동 종목은 단체훈련을 해야 하기에 마땅한 대안점이 없어 많은 체육계 관계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이뿐만인가! 지리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관계로 일부 종목은 동계훈련 시 따뜻한 해외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런 일들은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해외 전지훈련은 상대방국가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는 한 어려워 보인다.

그럼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며 오로지 금메달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던 우리 학생선수들의 미래는 어떠한가? 국위선양이고, 금메달이고 훌륭한 프로야구선수들이건 간에 이 사태로 인하여 학생선수들에 대한 원초적인 위치 설정을 해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 듯하다. “학생인가? 아니면 운동선수인가? 운동선수인데 단체훈련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라는 가정(假定)의 의문부호가 현실이라면 학생운동부의 존재감이 아득해 보인다.

일례로 일부 인기 종목 운동부에 관해 매체에서 언급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등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매달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운동부지도자들을 탓하는 것도 무리수이다. 그들 또한 회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예전에는 인기 종목은 동문회에서 그 운동부를 운영해왔다. 지도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훈련



출처: 한국야구포럼DB

비 및 제반 활동비용까지도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동문회 후원은 미미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러한 회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겨울 동계훈련비용이다. 동계훈련비 그리고 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안고 해외 동계훈련을 다녀왔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 동계훈련의 의미는 사라졌고 다시 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학생운동부들의 문제점에 대해 원초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을 한다. 가뜩이나 공부하는 운동선수 배출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정책이 변화하는 마당에 이번 기회에 학생선수들 또한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신분이기에 일반 학생들처럼 방학 중에는 개인 생활을 하고 개학 후 운동부에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사유로 단체 운동부 코치들의 처우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 중학교 운동부에 단체 훈련시간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고 한다. 훈련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이로 인하여 코치들의 처우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정착된다면 운동부지도자들의 투잡(Two Job) 시대는 도래(到來)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새로운 학교체육 매뉴얼 정립 시급

현재 학생운동부는 패닉 상태다. 특히 대학입시가 걸려있는 고(高)3 학생운동선수들 및 학부모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및 일선 교육청에서 하달하는 학생운동부의 매뉴얼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만 하다. 서울소재 모 교육청의 공문 내용이다.

####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안내”

##### 경기수행능력 유지 향상을 위한 학생선수별 자율 프로그램 제공

- 학교급별, 학년별, 종목별, 선수 개인별(포지션, 자율훈련 실시 환경 등)을 고려, 가정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체력(근력, 유연성 등)훈련, 기초기능 훈련위주로 구성.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 및 자율훈련 실천 상황 일일 점검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별 훈련일지를 점검하고 자율훈련에 대한 피드백 제공. 지도자는 정상 출근 후 업무 수행(자율훈련 코칭, 훈련시설 점검, 훈련계획 수립 등)

지방 교육청의 공문은 이렇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운동부 현장 확인 계획”

- 확인 기간 : 2020.4.14(화)~코로나19 종료까지
- 현장 확인 중점사항
  
- 학생선수 개인(희망)별 훈련 점검 및 전화 상담여부-학교장, 학교체육소위원회, 학부모 등 협의체 결정에 따라 코로나 예방 대책이 마련된 제한적 개인 훈련 가능. 개인별 훈련 희망학생 시차별 훈련(2인 이상 동시 훈련금지), 확인결과 사후조치
  
-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조치하되,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치 이행
  
- 미비사항 시정 조치 후에도 미 시정 학교에 대한 적극적 행정, 재정적 제한 조치
  - 행정사항 교육지원청(담당기관)
  - 4.14~코로나19 종료(확인기간)
  - 초, 중, 고 학교운동부(확인대상)
  - 위반학교 시정조치(조치)
  - 도교육청, 운동부 현장확인(담당업무)
  - 4.14~코로나19 종료(확인기간)
  - 운동부기숙사 운영학교 중심(확인대상)
  - 위반학교 시정조치(조치)

이상 두 시도 교육청의 공문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는데 필자가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마땅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하기가 처음 직면하는, 그것도 백신도 없이 전파력이 높고 치명력도 위험한 수준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는 확실한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하다. 학생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더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들은 학업의 수행능력에 따라 재수라도 할 수 있지만 학생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 1단계: 2019

- 스포츠혁신위원회 공식출범 (2월11일)
- 권고안 발표 1차-7차
- 공공/학교체육시설 스포츠클럽우선사용/위탁운영/플랫폼구축 계획마련. 경기인등록, 단체분리 등 법적 근거 및 세부조항 마련.

## 2단계: 2020년 1/4분기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 학교운동부 주중대회금지, 훈련시간 제약, 학부모 비용각출 지원금지, 각종불법 찬조금 금지
- 권고안 위반사항 학교단위(학교장)책임

## 3단계: 2020년 1.1~12.21

-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법인화, 등록제, 통합회원제), 플랫폼, 예산확보
- 공공/학교체육시설 스포츠클럽 우선사용/위탁운영권 부여, 예산지원
- 선수등록제: 클럽회원제로 통합
- 스포츠키본법 '모' 법제정 추진
- 범 정부기구(가칭 스포츠정책위원회)출범추진: 부처통제불가 독립기구
-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단계: 2021년 1.1~12.31

- 학생선수 클럽 회원전환
- 클럽통합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폐지
- 스포츠클럽육성법시행: 법인체 기준 등록제
- 공공/학교시설의 클럽 위탁/사용우대 관리 지원, 시설 소유자 면책
- 스포츠클럽중심 전국지도자 배치
- 전국체전 출전 자격 오픈

## 5단계: 2022년~

- 고교/대학특기자 입시
- 최저학력제 기준 적용
- 종합 선발 기준 적용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단계별 프로세스  
출처: 청주대학교 김현일 교수

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일반학생들 위주로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OECD국가 대한민국의 학생체육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에 이번 기회에 학생체육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메뉴얼을 제공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의 대안으로 급부상

2019년 정부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공식출범시켰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권고안을 7차례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 학생선수와 관련된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다.

이상의 내용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의 주요골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계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도외시 한 탁상공론이라고 반대를 해왔지만 현실은 이 권고안의 내용대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로 교육계에서는 등교개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등교 선택권이라는 단어가 급부상 하면서 등교 개학이라는 단어 또한 옛말이 되었다고 한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등교를 하지 말고 재택수업을 하면 수업을 인정한다고 한다. 등교 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과 이로 인한 지역감염 차단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등교가 이루어져야 훈련이 가능하고 거리두기 운동에 제일 취약한 관계로 코로나19 이전의 훈련 메뉴얼로는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없기에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훈련시간은 최대한 줄이려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부각시켜 학교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반 학생들과 감염 차단 및 방역을 내세우게 될 듯하다. 특히 일부 인기 종목에서 보듯이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들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민원에 시달렸던 일부 학교운동부 학교장들은 스포츠클럽 전환을 환영하는 모습이라고 많은 이들은 전하고 있다.



출처: shutterstock



출처: 한국야구포럼DB

### 다시는 올수 없는 코로나 이전의 시간들...

2020년 5월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등교 개학, 등교선택권, 거리유지, 입국자 2주간 강제 격리, 집합금지명령 등 아주 낯선 단어들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체육계의 행정은 매우 낙후해 있다. 축구의 최대 시장인 유럽 축구리그와 야구의 메이저리그가 개막은 고사하고 답답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는 국내 스포츠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자체가 과연 옳은 건지 아쉽기만 하다. 경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 치더라도 전국을 이동하며 숙박 및 제반여건 등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

성인 스포츠가 이러한데 대학입시의 기본 틀인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주말리그를 도외시하



출처: shutterstock

고 신문사 위주의 전국대회만을 강조하는 모 체육협회 행태를 바라볼 때 아직도 그들의 뇌에는 낡은 이끼가 젖어있는 듯하다. 모름지기 체육단체는 학생을 위한 체육단체가 되어야하는데 협회를 위한 협회, 협회에 의한 협회가 대다수인 듯하다. 이렇게 학생선수들을 협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한 이 나라의 학생선수들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 보인다.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체육단체들에게 개념정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학교체육지형은 이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체육계 또한 코로나 방역처럼 자체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하루 빨리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설정하는 것만이 코로나19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